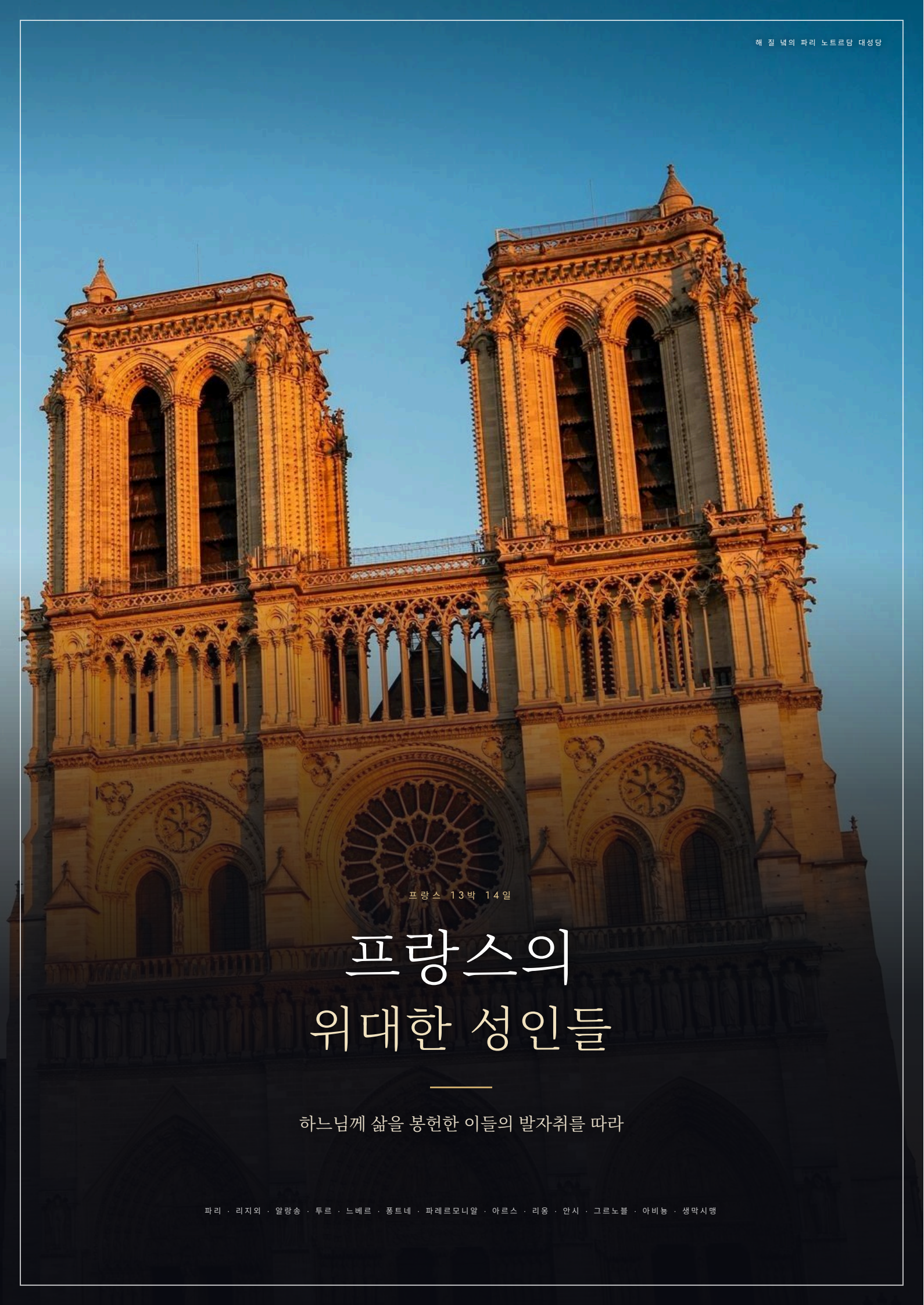


프랑스 13박 14일

프랑스의 위대한 성인들

하느님께 삶을 봉헌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파리 · 리지외 · 알랑송 · 투르 · 느베르 · 퐁트네 · 파레르모니알 · 아르스 · 리옹 · 안시 · 그르노블 · 아비뇽 · 생막시맹

성인이 되기 전, 그들은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어린 시절과 가족, 의심과 시련.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온 부르심.



리옹, 손강과 푸르비에르 언덕

거의 2천 년 동안 프랑스는 그리스도교 역사에 깊은 자취를 남긴 믿음의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에, 어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에, 가르침이나 **선교**에 삶을 바쳤습니다.

모든 이름 뒤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다섯 살에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간 소녀, 가정 한가운데서 성덕을 살아 낸 부부, 소박한 **시골 본당 신부**, 복음을 **아메리카**까지 전하러 떠난 수녀.

14일 동안 여러분은 그들의 **집**과 기도처에 들어가고, 그들이 남긴 글과 손때 묻은 물건들을 만납니다. 파리에서 노르망디로, 부르고뉴에서 알프스로, 그리고 프로방스까지.

건축물은 무대이고, 성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 낸 믿음이 여정 전체를 잇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열여덟 개의 얼굴,
열여덟 개의 삶

역사 사진, 초상화, 조각, 스테인드글라스. 모든 이미지에 그 출처를 밝혔습니다.



성왕 루이

1214 – 1270
엘 그레코의 그림, 1590년경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1581 – 1660
시몽 프랑수아의 초상, 1660년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릴락

1591 – 1660
17세기 초상



성녀 가타리나 라부레

1806 – 1876
성화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1873 – 1897
역사 사진



성 루이 마르탱

1823 – 1894
역사 사진



성녀 젤리 마르탱

1831 – 1877
역사 사진



투르의 성 마르티노

316년경 – 397
엘 그레코, 1597–1599년경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

1844 – 1879
1861년 사진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1090 – 1153
중세 채색 필사본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1647 – 1690
성화, 1900년경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1786 – 1859
에밀리앵 카뷔세의 조각상



성녀 블란디나와 성 이레네오

2세기
옛 판화



복자 폴린 자리코

1799 – 1862
초상, 생니지에 성당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1567 – 1622
17세기 초상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

1572 – 1641
M. 브란디의 판화, 1800년경



성녀 로즈 필리핀 뒤셴

1769 – 1852
19세기 초상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1세기
조르주 드 라 투르, 1640년경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 살았던 성인들의 이미지는 실제 초상이 아니라 예술 작품입니다. 역사 사진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여섯 개의 장,
사랑하는 천 가지 방법

사랑에서 선교까지, 여정지마다 성덕의 다른 얼굴을 보여 줍니다.


생트샤펠, 파리

제 I 장

이웃을 섬기는 믿음

파리 · 1 – 3일차

참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던 왕, 가난한 이들의 사제, 사랑의 딸회의 두 수녀.


성녀 소화 데레사 대성당, 리지외

제 II 장

일상 속의 성덕

리지외 · 알랑송 · 4 – 5일차

데레사와 그녀의 '작은 길', 그리고 결혼과 일 속에서 성인이 된 부모 루이와 젤리.


성 마르티노 대성당, 투르

제 III 장

자기 봉헌과 봉헌 생활

투르 · 느베르 · 퐁트네 · 6 – 8일차

망토를 나눈 군인, 베르나데트의 숨은 삶, 성 베르나르도의 이상.


방전 경당, 파레르모니알

제 IV 장

하느님의 사랑과 교회를 위한 봉사

파레르모니알 · 아르스 · 9일차

한 수녀에게 드러난 그리스도의 성심, 그리고 시골 본당 신부의 방.


안시, 일 궁

제 V 장

증언의 용기와 선교의 열정

리옹 · 안시 · 그르노블 · 10 – 12일차

177년의 순교자들에서 미주리로 떠난 그르노블의 젊은 여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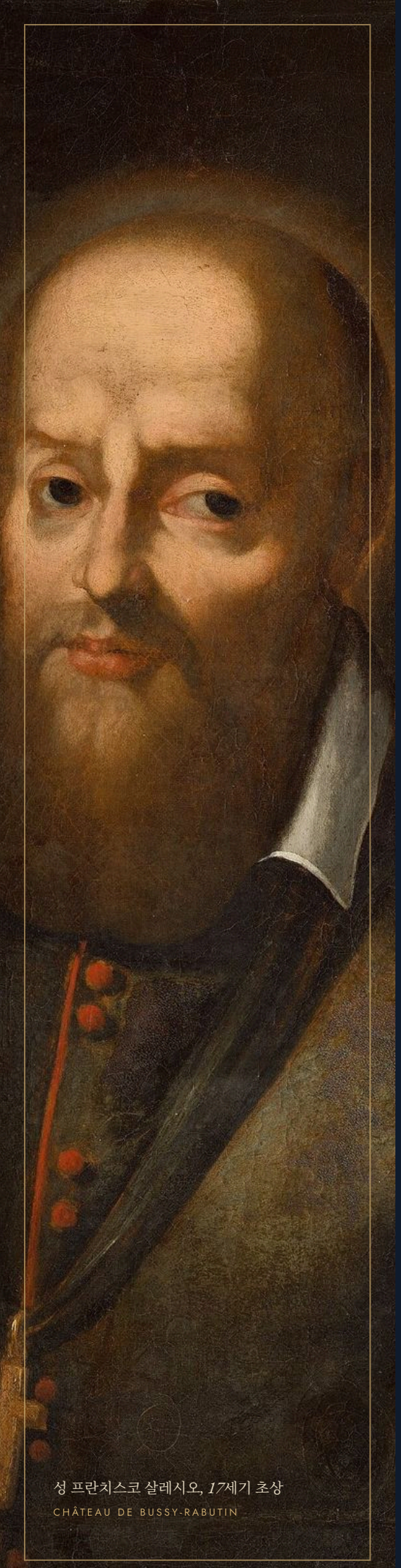

생막시맹 대성당

제 VI 장

그리스도교의 뿌리

아비뇽 · 생막시맹 · 13 – 14일차

프로방스의 교황청, 그리고 부활의 증인 마리아 막달레나의 전승.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17*세기 초상

CHÂTEAU DE BUSSY-RABUTIN

열 개의 연도로 보는 열여덟 세기

리옹의 순교자들에서 리지외의 데레사까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삶들을 이어 주는 결정적인 순간들.

177 — **리옹의 순교자들**

젊은 노예 블란디나가 도시의 첫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합니다.

397 — **성 마르티노**

투르의 주교가 캉드에서 선종합니다. 그의 무덤은 서방의 위대한 순례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1118 — **퐁트네**

성 베르나르도가 오늘날 세계유산인 시토회 수도원을 세웁니다.

1248 — **생트샤펠**

파리에서 성왕 루이가 수난의 성유물을 모실 유리 성유물함을 봉헌합니다.

1610 — **성모 방문 수녀회**

안시에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요안나 드 샹탈이 새로운 수도회를 세웁니다.

1633 — **사랑의 딸회**

빈첸시오 아 바오로와 루도비카 드 마릴락이 첫 수녀들을 모읍니다.

1675 — **예수 성심**

파레르모니알에서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가 큰 발현을 체험합니다.

1818 — **두 번의 출발**

비안네가 아르스에 부임하고, 필리핀 뒤센이 아메리카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1830 — **기적의 메달**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뤼 뒤 박에서 성모님께서 가타리나 라부레에게 나타나십니다.

1897 — **데레사**

스물네 살에 리지외 가르멜에서 선종합니다. 그녀의 글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열네 곳의 여정지,
파리에서 프로방스까지

그들이 태어난 집에서 잠든 무덤까지, 전용 버스로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위대한 여정.



1

파리

1 – 3일차



2

리지외

3 – 4일차



3

알랑송

4 – 5일차



4

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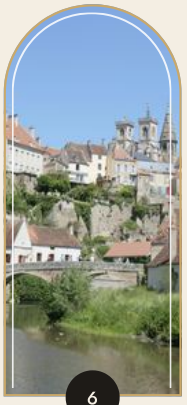
5 – 6일차



5

느베르

6 – 7일차



6

스뮈르앙옥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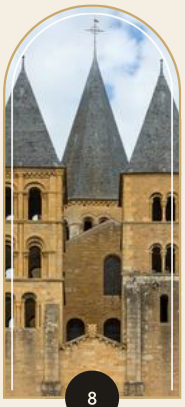
7 – 8일차



7

퐁트네

8일차



8

파레르모니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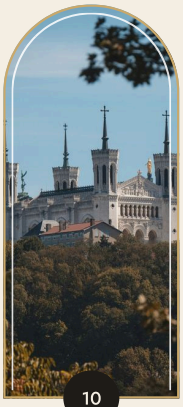
8 – 9일차



9

아르스

9일차



10

리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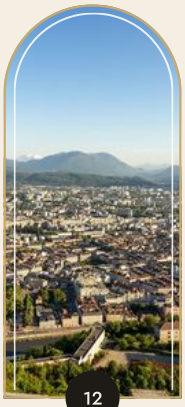
9 – 10일차



11

안시

10 – 11일차



12

그르노블

11 – 12일차



13

아비뇽

12 – 13일차



14

생막시맹

13일차

어린 시절의 집, 보존된 방, 편지와 유해. 사람의 눈높이에서 만나는 성덕.

14	18	7	2
일, 13박	성덕의 인물	전문 가이드 투어	문화 체험



여행 경로

파리에서 프로방스까지

*13*박 *14*일,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마르세유 프로방스 공항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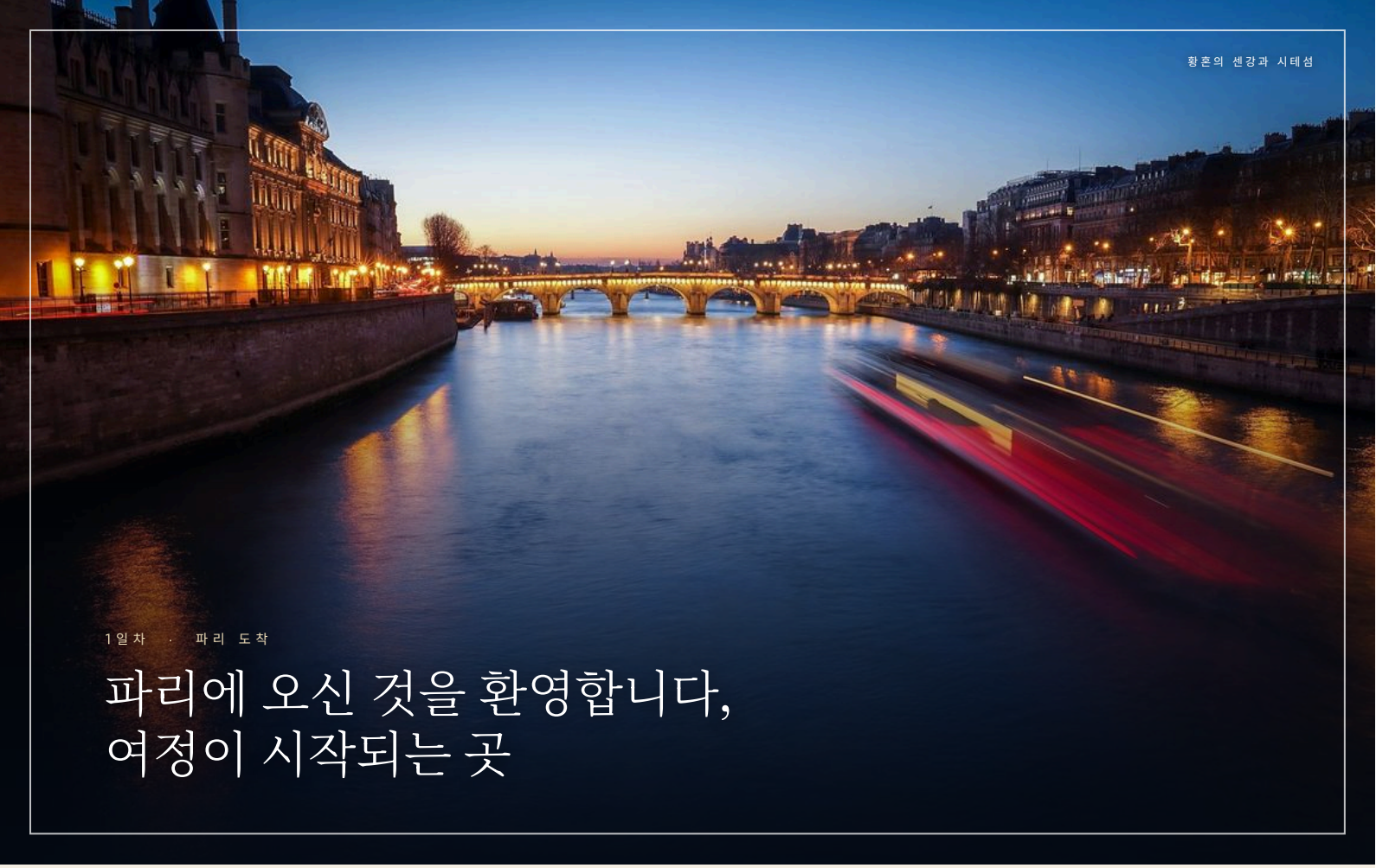
1	파리 1 – 3일차 · 2박	6	스뮈르앙옥수아 7일차 · 1박	11	안시 10일차 · 1박
2	리지외 3일차 · 1박	7	퐁트네 8일차 · 방문	12	그르노블 11일차 · 1박
3	알랑송 4일차 · 1박	8	파레르모니알 8일차 · 1박	13	아비뇽 12일차 · 1박
4	투르 5일차 · 1박	9	아르쉬르포르망 9일차 · 방문	14	생막시맹 13일차 · 방문
5	느베르 6일차 · 1박	10	리옹 9일차 · 1박	15	마르세유 13 – 14일차 · 1박



제 I 장

이웃을 섬기는 믿음

성왕 루이가 가시관을 모시려고 지은 생트샤펠의 위층 예배당.



황혼의 센강과 시테섬

1일차 · 파리 도착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정이 시작되는 곳

오전	오후	저녁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도착	전용 버스로 이동	환영 만찬
일행 영접	체크인 및 휴식	파리 숙박

센강 가에서 보내는 수도에서의 첫 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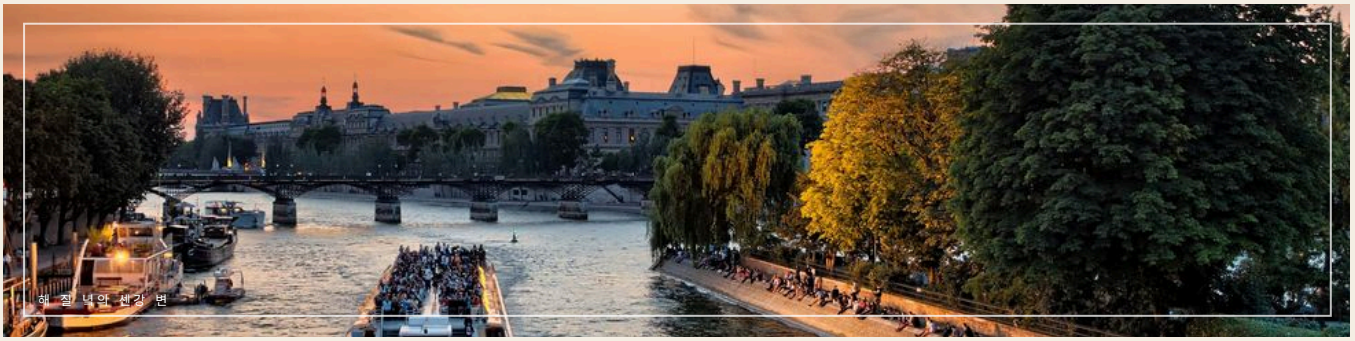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일행을 맞이한 뒤, **전용 버스**로 파리의 호텔까지 모십니다.

체크인 후 여행의 피로를 풀고 수도에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녁에는 **환영 만찬**과 함께 **프랑스의 성인들**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막이 오릅니다.

알고 계셨나요?

18

명의 성덕의 인물이 이 여정을 수놓습니다. 왕, 사제, 수녀, 부모, 순교자, 그리고 선교사.



해 질 녘의 센강 변

성왕 루이,
믿음을 중심에 둔 왕

오전	오후	저녁
생트샤펠 가이드 투어	점심 식사와 자유 오후	센강 야경 유람선
전문 가이드	나만의 리듬으로 만나는 파리	파리 둘째 밤

왕관 뒤의 한 사람. 의무와 정의, 그리고 기도.

오전에는 **전문 가이드**와 함께 **루이 9세**를 만납니다. 열두 살에 왕위에 올라 열한 자녀의 아버지가 된 그는 1239년에 얻은 가시관을 모시려고 **생트샤펠**을 지었습니다. 그 **스테인드글라스**는 이 예배당을 전성기 고딕의 정점으로 만듭니다.

그의 벗 **주앵빌**은 왕이 뱅센에서 미사를 마친 뒤 참나무 아래에 앉아 정의를 구하는 이들의 말을 몸소 들었다고 전합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는 **자유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파노라마 유람선**이 불 밝힌 기념물들을 따라 센강 위를 미끄러집니다.

성인의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성왕 루이가 아들에게 남긴 가르침, 주앵빌의 기록



성왕 루이, 엘 그레코, 1590년경

생트샤펠의 스테인드글라스



기적의 메달 성당, 뤼 뒤 박

3일차 · 파리 – 리지외

하느님을 섬긴 세 개의 삶

오전	두 성당 가이드 투어 전문 가이드
오후	점심 식사 유해함 앞에서의 묵상
저녁	노르망디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저녁 식사, 리지외 숙박

가난한 이들의 사제, 행동하는 여인, 끈질긴 침묵의 수녀.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이날은 세 가지 사랑의 이야기를 잇습니다. **뤼 드 세브르 95번지**의 라자로회 성당에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유해함이 모셔져 있습니다.

뤼 뒤 박 140번지의 **기적의 메달 성당**에는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릴락**의 유해와 **성녀 가타리나 라부레**의 시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유해함 앞에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에 **리지외**로 이동해 저녁 식사 후 숙박합니다.


기적의 메달

알고 계셨나요?

1617

샤티용레동브에서 빈첸시오는 한 가족 전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론에서 이를 알립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우러 갔습니다. 사랑에도 조직이 필요함을 깨달은 그는 첫 '애덕회'를 세웁니다.

두 성당,
세 가지 사랑의 이야기

빈첸시오는 루도비카를 길러 냈고, 루도비카의 수녀들은 가타리나를 맞아들였습니다. 하나의 영적 가족.



투르의 시몽 프랑수아가 그린 초상, 1660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1581 – 1660 · 사제

랑드 지방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권세가들의 전속 사제가 되었으나, 마침내 가난한 이들을 택했습니다. **선교회**(1625)를 세우고 파리의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 "형제들이여,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나 우리 팔의 힘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
> 선교사들에게 한 강화



작자 미상의 초상, 카르나발레 박물관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릴락

1591 – 1660 · 과부, 설립자

한 아들의 어머니로 서른네 살에 남편을 잃은 그녀는 빈첸시오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1633년 병자들을 섬기는 첫 **사랑의 딸회** 수녀들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서한**은 수백 통에 이릅니다.

> 1660년 3월 15일 선종했고, 빈첸시오도 여섯 달 뒤 그 뒤를 따랐습니다.



19세기 성화

성녀 가타리나 라부레

1806 – 1876 · 사랑의 딸회 수녀

부르고뉴 농가의 딸로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읜 그녀는,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1830년 뤼 뒤 박의 수련 수녀 시절 **기적의 메달** 발현을 체험했습니다.

> 그 뒤 46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도 밝히지 않은 채 양로원의 노인들을 섬겼습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유해함, 뤼 드 세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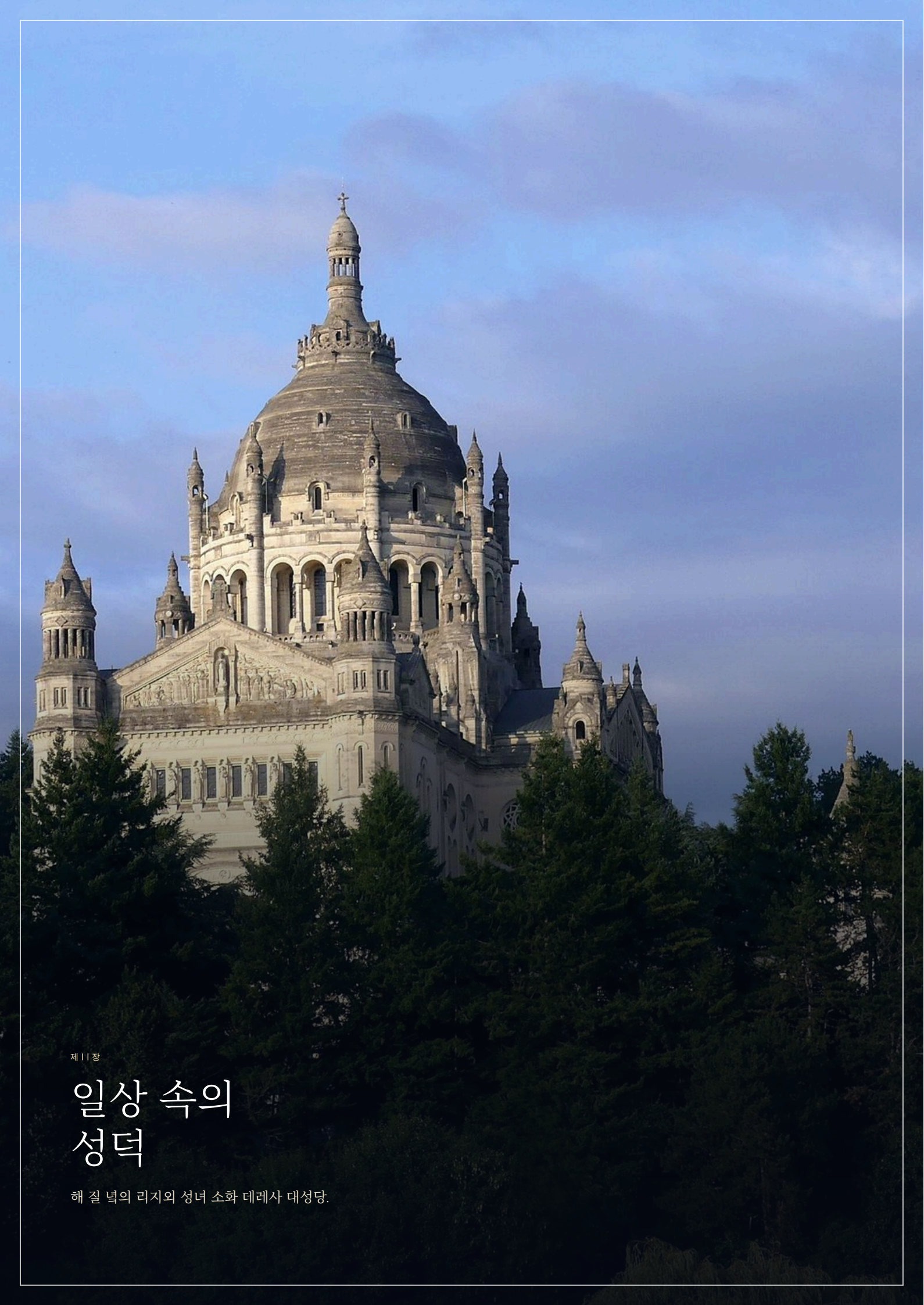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릴락의 유해함, 뤼 뒤 박

기적의 메달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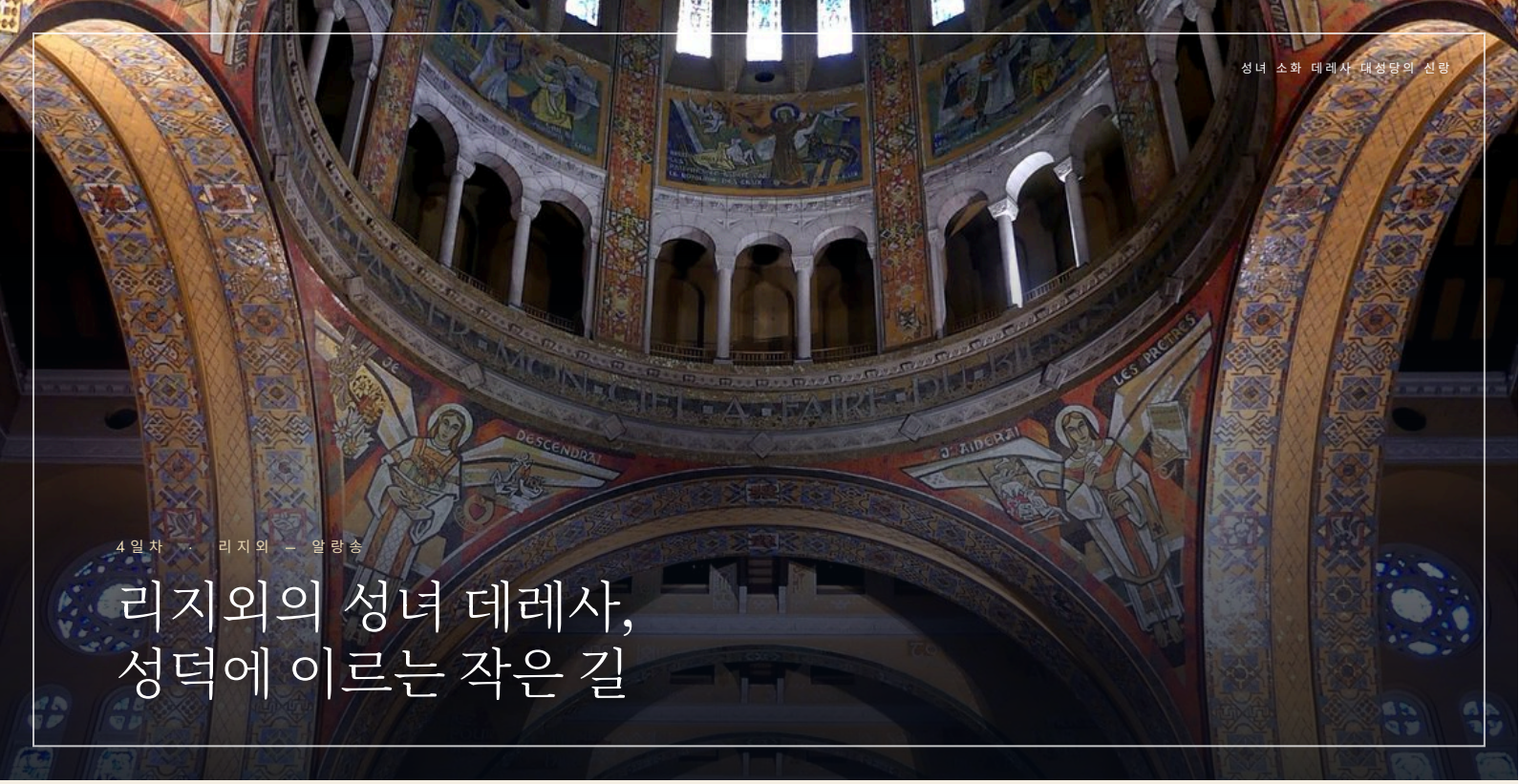
기적의 메달에 새겨진 기도, 1830년



제 I I 장

일상 속의 성덕

해 질 녘의 리지외 성녀 소화 데레사 대성당.



4일차 · 리지외 — 알랑송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성덕에 이르는 작은 길

오전	오후	저녁
레 뷔소네 개방 조건에 따라	리지외 가르멜과 대성당 일정 중 점심 식사	알랑송으로 이동, 약 1시간 45분 저녁 식사, 알랑송 숙박

교회 학자가 된 섬세한 아이.

어머니를 여읜 뒤 자란 집 **레 뷔소네**에서 그녀의 **방**과 장난감, 그리고 가족의 삶이 배어 있는 분위기를 만납니다.

열다섯 살에 입회한 **가르멜 수녀원** 성당에는 그녀의 유해함이 모셔져 있습니다. 기념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영성 서적 가운데 하나인 『**한 영혼의 이야기**』에 담긴 그녀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어 그녀의 유산에 봉헌된 **성녀 소화 데레사 대성당**을 찾습니다. 저녁에 알랑송으로 이동합니다.

성인의 말씀

"마침내 저는 제 성소를 찾았습니다. 제 성소는 사랑입니다!"

데레사, 자서전 원고 B, 1896년



데레사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 레 뷔소네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 성당



데레사 마르탱, 역사 사진

4일차 · 리지외

데레사의 작은 길

데레사 마르탱은 **1873년 1월 2일** 알랑송에서 아홉 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네 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가족은 리지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세우지도, 먼 길을 떠나지도 않았고, **스물네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글로 남겼습니다. 가장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길을.

1886년 성탄

성탄 밤 미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성탄 신발 앞에서 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행히 올해가 마지막이구나!” 그녀는 눈물을 삼킵니다. 훗날 그녀는 그날 밤 어린 시절에 잃었던 힘을 되찾았다고 고백합니다.

1887년 성령 강림 대축일

레 뷔소네의 정원에서 그녀는 가르멜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아버지께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와 함께 울고는, 뿌리째 뽑은 **작은 흰 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소녀 시절의 데레사 수녀, 역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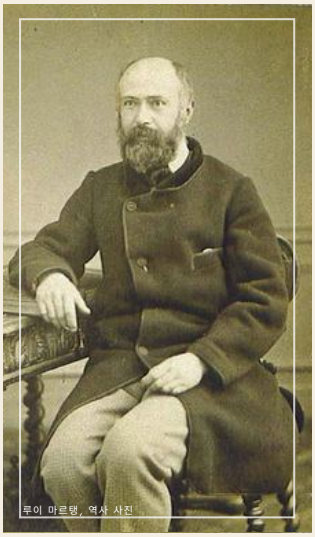
레 뷔소네, 리지외

“저는 땅 위에 선을 행하면서 저의 천국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대화, 1897년 7월 17일

루이와 젤리 마르탱, 가정 한가운데의 성덕

시계공과 레이스 장인, 그리고 아홉 자녀. 2015년 10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함께 시성한 부부.


루이 마르탱, 역사 사진


젤리 마르탱, 역사 사진

오전에는 **전문 가이드**와 함께 지극히 평범했던 한 부부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루이**는 시계공이자 보석상이었고, **젤리**는 **알랑송 레이스** 공방을 직접 운영하며 여공들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1858년 알랑송 노트르담 성당에서 혼인했습니다.

데레사가 태어난 생블레즈 거리의 **가족의 집**은 그들의 일상을 들려줍니다. 일과 딸들의 교육, 저녁 기도, 그리고 어린 네 자녀의 죽음과 마흔다섯 살에 세상을 떠난 젤리의 병이라는 시련까지.

젤리가 남긴 **편지**는 이백 통이 넘습니다. 공방의 장부, 딸들의 웃음, 한 어머니의 걱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전	알랑송 가이드 투어 마르탱 가족의 집
오후	점심 식사 알랑송 레이스 공방
저녁	투르로 이동, 약 2시간 저녁 식사, 투르 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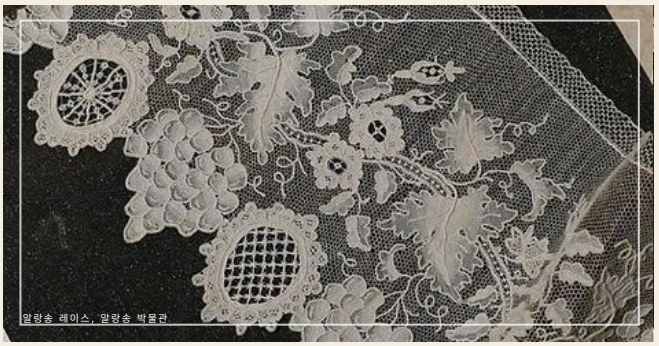
문화 체험

알랑송 레이스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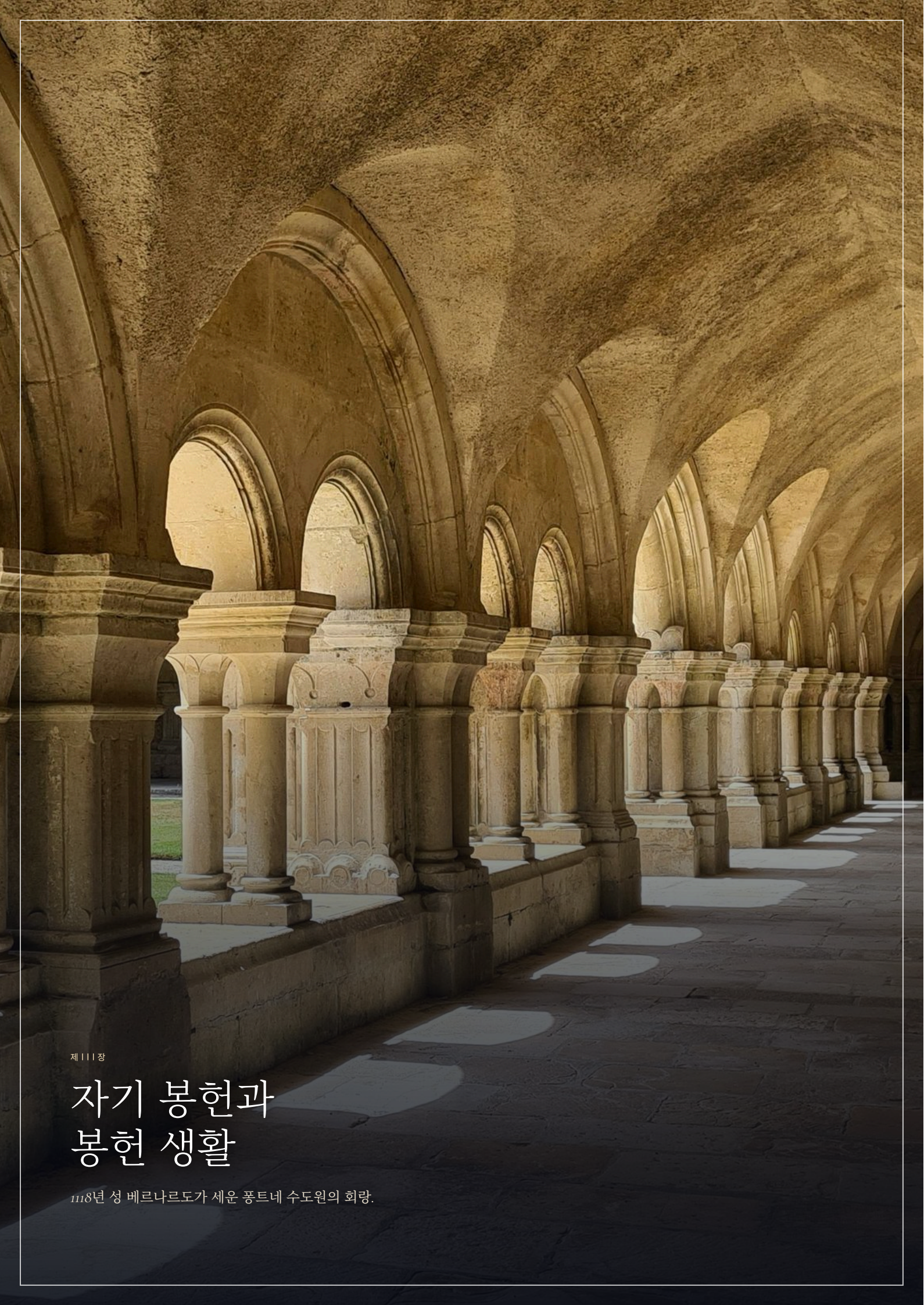
이른 오후, **체험 공방**에서 마르탱 가족의 생계였던 바늘 레이스의 손놀림을 배웁니다.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술입니다.

"하느님을 먼저 섬기라"

루이 마르탱의 좌우명


알랑송 레이스, 알랑송 박물관


생블레즈 거리의 데레사 생가



제 I I I 장

자기 봉헌과 봉헌 생활

*1118*년 성 베르나르도가 세운 퐁트네 수도원의 회랑.

6일차 · 투르 – 느베르

투르의 성 마르티노, 사랑이라는 성소

오전	오후	저녁
대성당 가이드 투어 전문 가이드	점심 식사 성 마르티노의 무덤	느베르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저녁 식사, 느베르 숙박

수도승이 되고 주교가 된 젊은 로마 군인.

전문 가이드와 함께 316년경 오늘날의 헝가리인 판노니아에서 태어난 **마르티노**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황제 근위대 장교였던 그는 어느 겨울밤 **아미앵 성문 앞에서** 가난한 이와 자신의 망토를 나누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투르가 아니라 아미앵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는 리귀제에 갈리아 최초의 수도원을 세웠고, 371년 **투르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성 마르티노 대성당**은 서방의 위대한 순례지 가운데 하나인 그의 **무덤** 위에 서 있습니다.

오후에는 **느베르**로 이동합니다.

성인의 말씀

“아직 예비 신자인 마르티노가 이 옷으로 나를 입혀 주었다.”

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말씀, 술피치오 세베로의 『성 마르티노 전기』



투르 구시가지

성인의 무덤 위에 선 성 마르티노 대성당



옛 생질다르 수녀원, 느베르



성녀 베르나데트의 유해함

7일차 · 느베르 – 스뮈르앙옥수아

성녀 베르나데트, 느베르에서의 숨은 삶

오전	베르나데트 수비루 기념관 옛 생질다르 수녀원
오후	유해함 앞에서의 묵상 점심 식사
저녁	부르고뉴로 이동, 약 2시간 15분 저녁 식사, 스뮈르앙옥수아 숙박

루르드 이후, 침묵과 순명의 열세 해.

세상은 1858년 **루르드**의 발현으로 그녀를 압니다. 이날 오전에는 또 다른 베르나데트를 만납니다. 1866년 **느베르 애덕 수녀회**에 입회한 젊은 여인입니다.

옛 생질다르 수녀원의 **베르나데트 기념관**은 간호 보조와 제의실 담당으로 보낸 일상, 그리고 천식과 병고를 들려줍니다. 성당에서는 그녀의 몸이 잠든 **유해함** 앞에서 묵상합니다.

점심 식사 후 **스뮈르앙옥수아**로 이동합니다.

성인의 말씀

"성모님께서는 저를 빗자루처럼 쓰셨습니다."

베르나데트, 느베르의 수녀들이 전한 말



8일차 · 퐁트네 – 파레르모니알

성 베르나르도, 절제와 수도 생활

오전	오후	저녁
퐁트네 수도원 회랑, 성당, 역사적 공간	점심 식사 파레르모니알로 이동, 약 2시간 15분	체크인, 저녁 식사 파레르모니알 숙박

교황과 왕들의 조언자, 장식 없는 성당을 원했던 이.

1090년 디종 근처에서 태어난 **베르나르도**는 스물두 살에 친척과 벗 서른 명가량을 이끌고 시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스물다섯 살에 클레르보의 수도원장이 된 그는 **1118년 퐁트네**를 세웠습니다.

이 수도원은 그의 집이 아니라 그의 이상이 드러난 곳입니다. **회랑**, 장식 없는 성당, 참나무 지붕틀 아래의 **공동 침실**, 대장간. 모든 것이 기도와 노동, 그리고 **버림**을 말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이어 파레르모니알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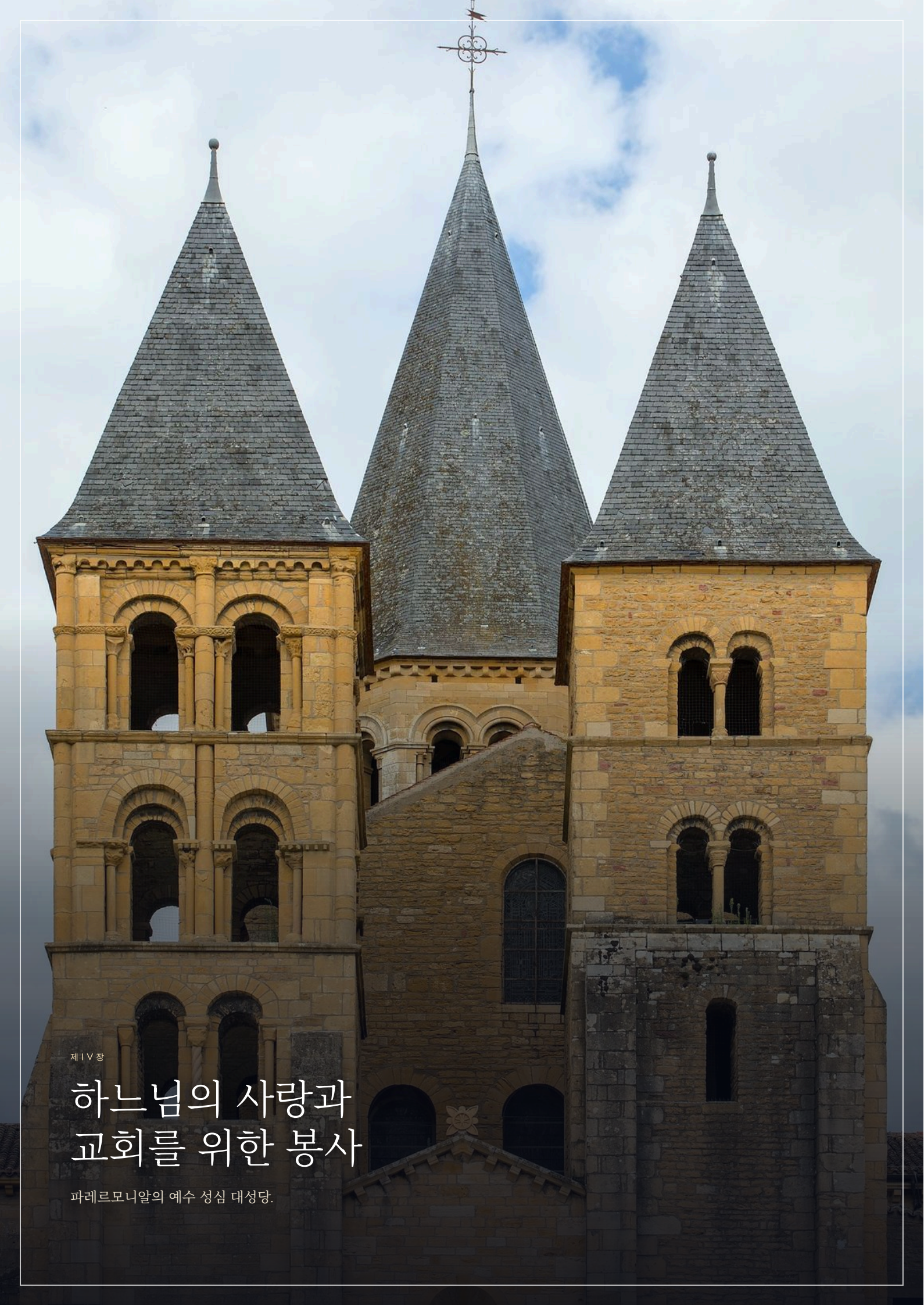
> 성인의 말씀
>
>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척도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
>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하느님 사랑에 관하여』



부르고뉴 골짜기의 수도원



소박하고 빛나는 수도원 성당



제 I V 장

하느님의 사랑과 교회를 위한 봉사

파레르모니알의 예수 성심 대성당.



발현 경당, 파레르모니알

9일차 · 파레르모니알 — 아르스 — 리옹

그리스도의 성심으로 가는 두 개의 길

오전	오후	저녁
발현 경당 예수 성심 대성당	아르쉬르포르망 대성당과 거룩한 본당 신부의 집	리옹으로 이동, 약 45분 저녁 식사, 리옹 숙박

성인의 말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한 이 마음을 보아라."

1675년 마르가리타 마리아가 받은 말씀, 그녀의 자서전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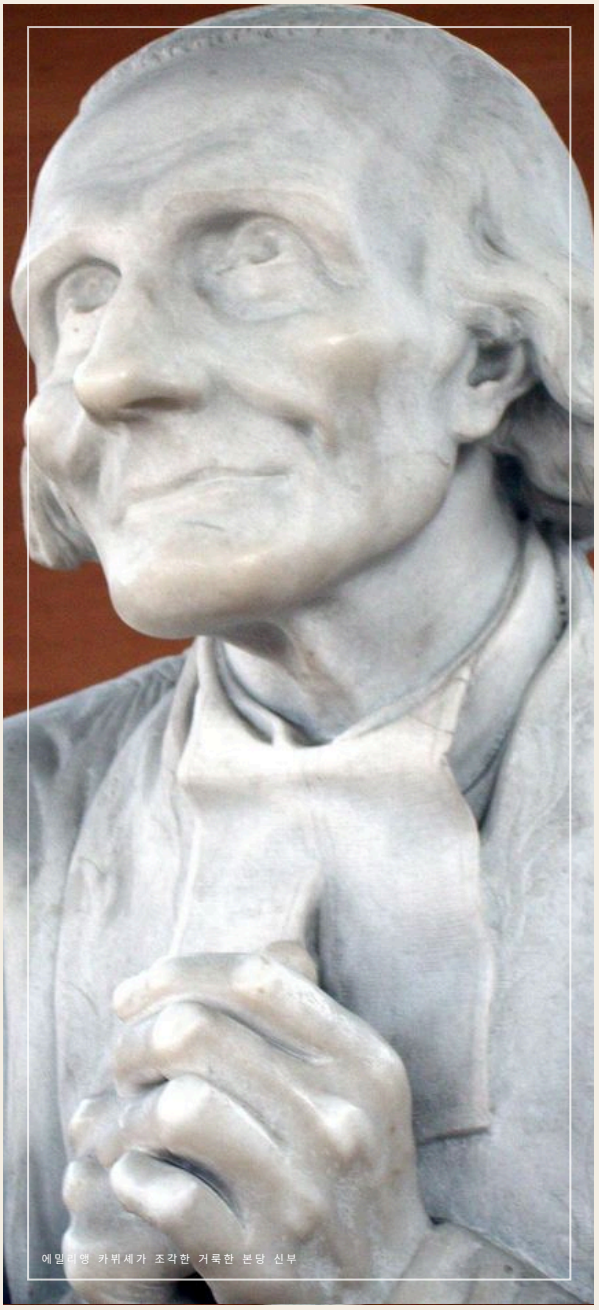
성모 방문 수녀회의 한 수녀, 그리고 한 시골 본당 신부.

파레르모니알에서, 어린 시절 네 해 동안 병상에 누워 지냈던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1671년 성모 방문 수녀회에 입회합니다. 그녀의 유해함이 모셔진 **발현 경당**에서 그녀는 1673년부터 1675년까지 신비 체험을 했고, 여기서 **예수 성심** 공경이 태어났습니다.

대성당에서 묵상한 뒤, 한 시골 본당 신부가 온 프랑스를 끌어당겼던 **아르스**로 향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를 소개합니다. 저녁에 리옹에 도착합니다.



황혼의 파레르모니알



에밀리앵 카뷔세가 조각한 거룩한 본당 신부

9일차 · 아르쉬르포르망

아르스 본당 신부의 방에서

다르디이의 농가에서 태어난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라틴어 공부에 애를 먹어 신학교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1818년 그는 주민 이백 명의 마을 **아르스**로 보내집니다.

그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좁은 침대, 며칠 먹을 **감자**를 한꺼번에 삶던 부엌, 기워 입은 수단, 성무일도서. 곧 프랑스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그에게 고해성사를 보러 몰려들었고, 그는 **하루 열일곱 시간까지** 고해소를 지켰습니다.

1818년 2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그는 어린 목동 앙투안 지브르에게 길을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아르스로 가는 길을 알려 주었으니,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 주마.” 마을 입구의 기념비가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르스 본당 신부의 집



대성당 안의 성인 유해함

“사제직은 예수 성심의 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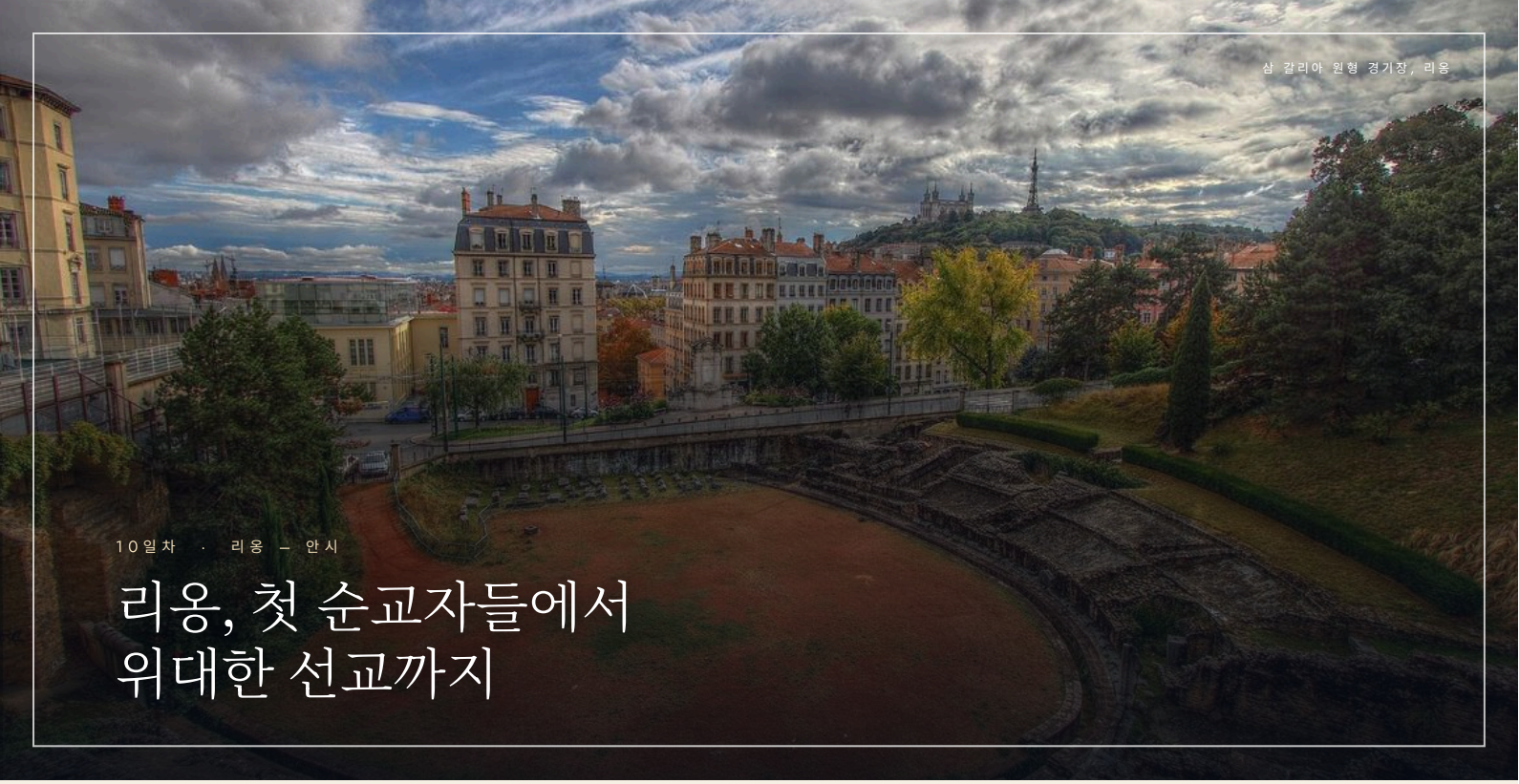
요한 마리아 비안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인용



제 V 장

증언의 용기와 선교의 열정

폴린 자리코가 살았던 리옹 푸르비에르 언덕.



삼 갈리아 원형 경기장, 리옹

10일차 · 리옹 — 안시

리옹, 첫 순교자들에서 위대한 선교까지

오전	오후	저녁
가이드 투어: 블란디나와 이레네오 전문 가이드	로레트의 집, 폴린 자리코 점심 식사	안시로 이동, 약 2시간 저녁 식사, 안시 숙박

박해받던 교회에서 온 세상으로 빛을 비추는 교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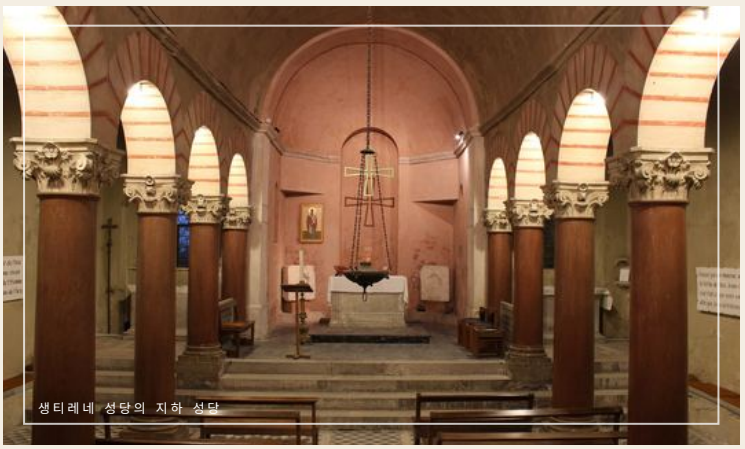
177년, 박해가 리옹의 그리스도인들을 덮칩니다. 역사가 에우세비오가 전하는 당대의 한 편지는 **삼 갈리아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한 젊은 노예 **블란디나**의 용기를 들려줍니다. 신학자였던 **이레네오** 주교가 그 증언을 지켜 냈습니다.

열여섯 세기 뒤, 비단 상인의 딸 **폴린 자리코**는 열 명씩 모여 매주 한 푼씩 선교를 위해 봉헌하는 **신앙 전파회**를 세웁니다. 2022년 **복자**품에 오른 그녀는 푸르비에르 언덕의 **로레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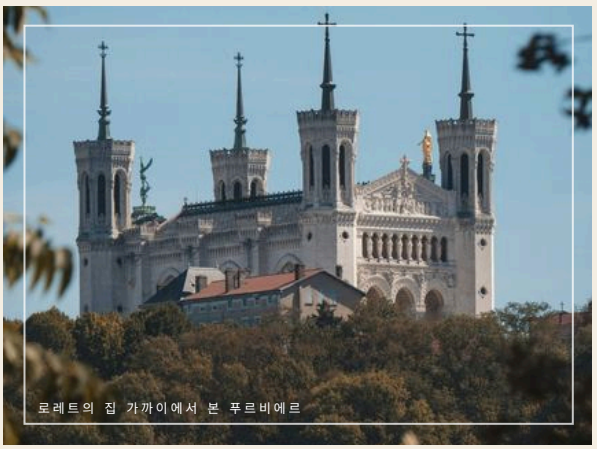
성인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악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블란디나, 리옹 그리스도인들의 편지, 에우세비오 인용



생티레네 성당의 지하 성당



로레트의 집 가까이에서 본 푸르비에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요안나 드 샹탈, 영적인 우정

오전	오후	저녁
살레시오 가이드 투어 전문 가이드	성모 방문 대성당 점심 식사	그르노블로 이동, 약 1시간 45분 저녁 식사, 그르노블 숙박

글 쓰는 주교, 남편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수도회.

전문 가이드와 함께 안시에 주재한 제네바의 주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는 『**신심 생활 입문**』**(필로테아)**에서 가정에서도 궁정에서도 누구에게나 열린 성덕을 가르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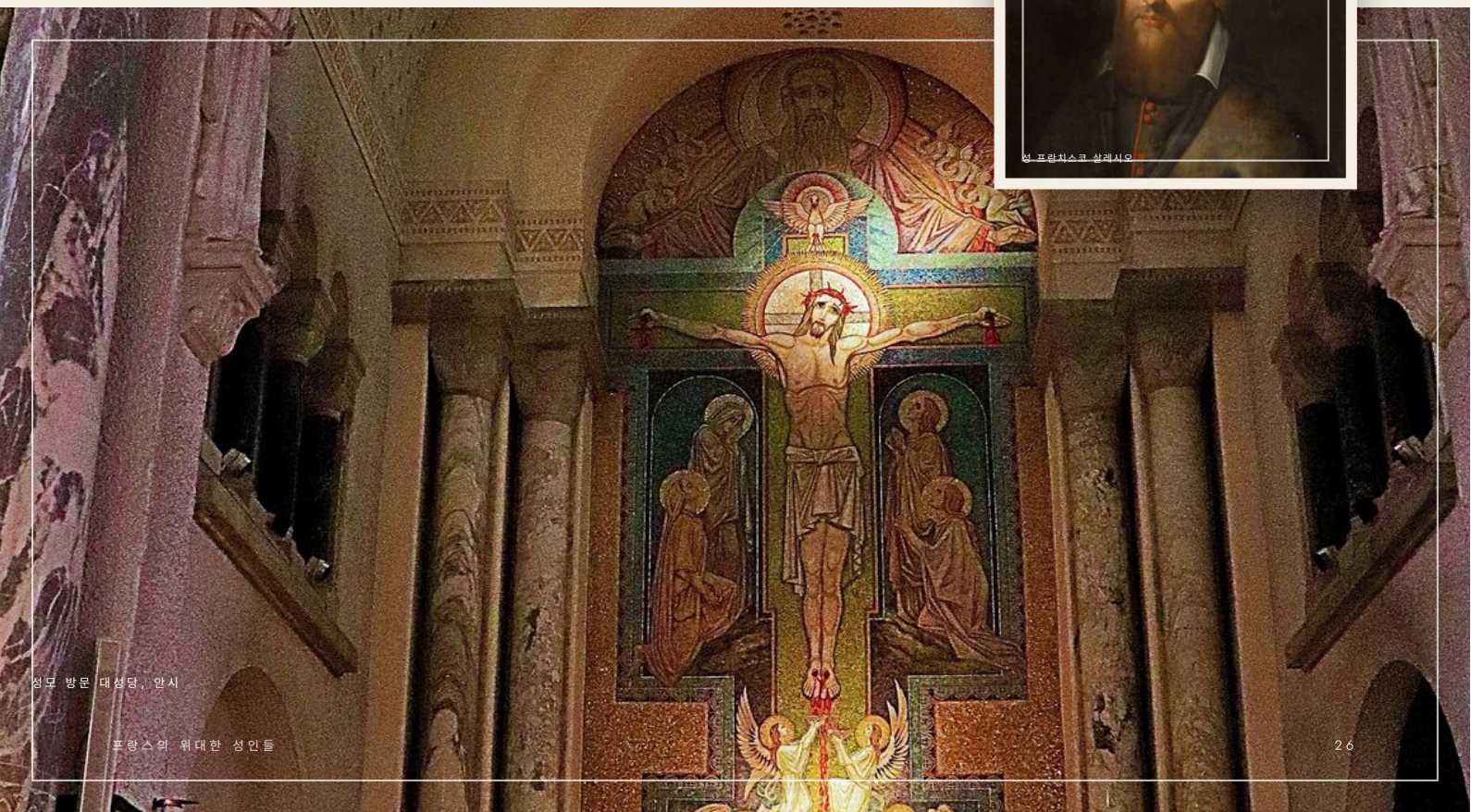
1604년 디종에서 그는 네 자녀를 둔 과부 **요안나 드 샹탈**을 만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서신 교환** 끝에 두 사람은 1610년 안시에서 함께 **성모 방문 수녀회**를 세웠습니다.

호수를 마주한 **성모 방문 대성당**에 두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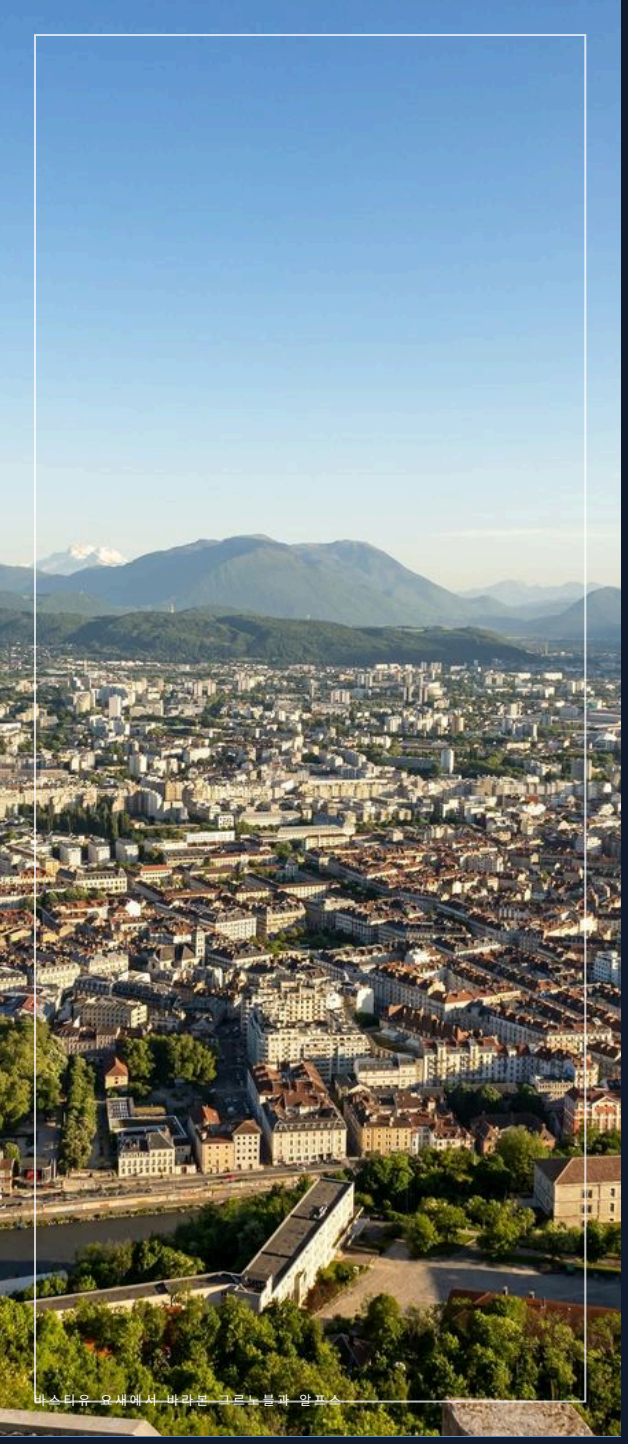
"결혼한 이들의 가정에서 신심 생활을 몰아내려는 것은 오류요, 이단이기까지 하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심 생활 입문』, 16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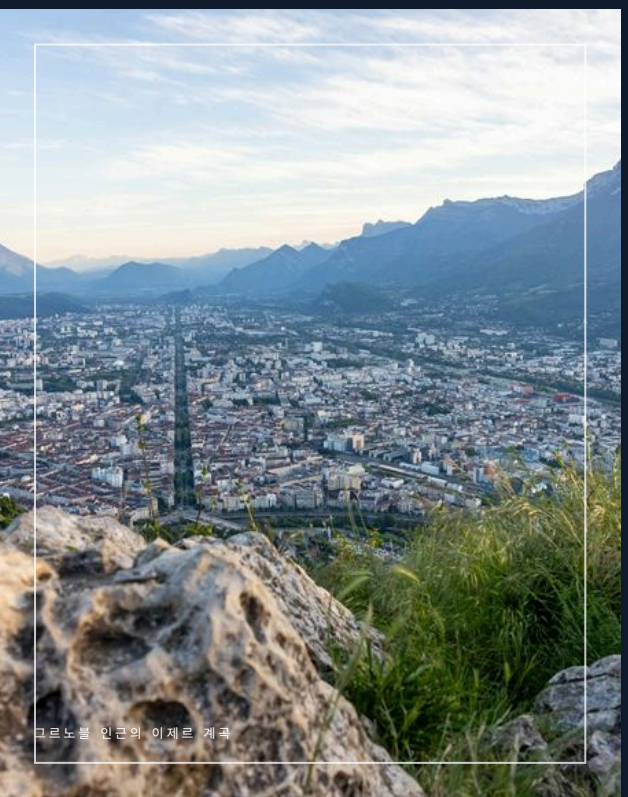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모 방문 대성당, 안시



바스티유 요새에서 바라본 그르노블과 알프스



그르노블 인근의 이제르 계곡

12일차 · 그르노블 – 아비뇽

로즈 필리핀 뒤셴, 그르노블에서 미주리까지

오전	가이드 투어: 그녀의 삶과 성소 전문 가이드
오후	옛 생트마리당오 수녀원 점심 식사
저녁	프로방스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저녁 식사, 아비뇽 숙박

마흔여덟 살에 신대륙으로 떠난 그르노블의 여인.

1769년 그르노블에서 태어난 필리핀은 젊은 나이에 성모 방문 수녀회의 **생트마리당오** 수녀원에 들어갔으나, 혁명으로 수녀원이 해산됩니다. 다시 돌아온 그녀는 1804년 **예수 성심회**에 합류합니다. 옛 수녀원은 오늘날 **도피네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1818년 대서양을 건넌 그녀는 **미주리주 세인트찰스**에 여학교를 엽니다. 일흔두 살에 다시 길을 떠나 **포타와토미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1988년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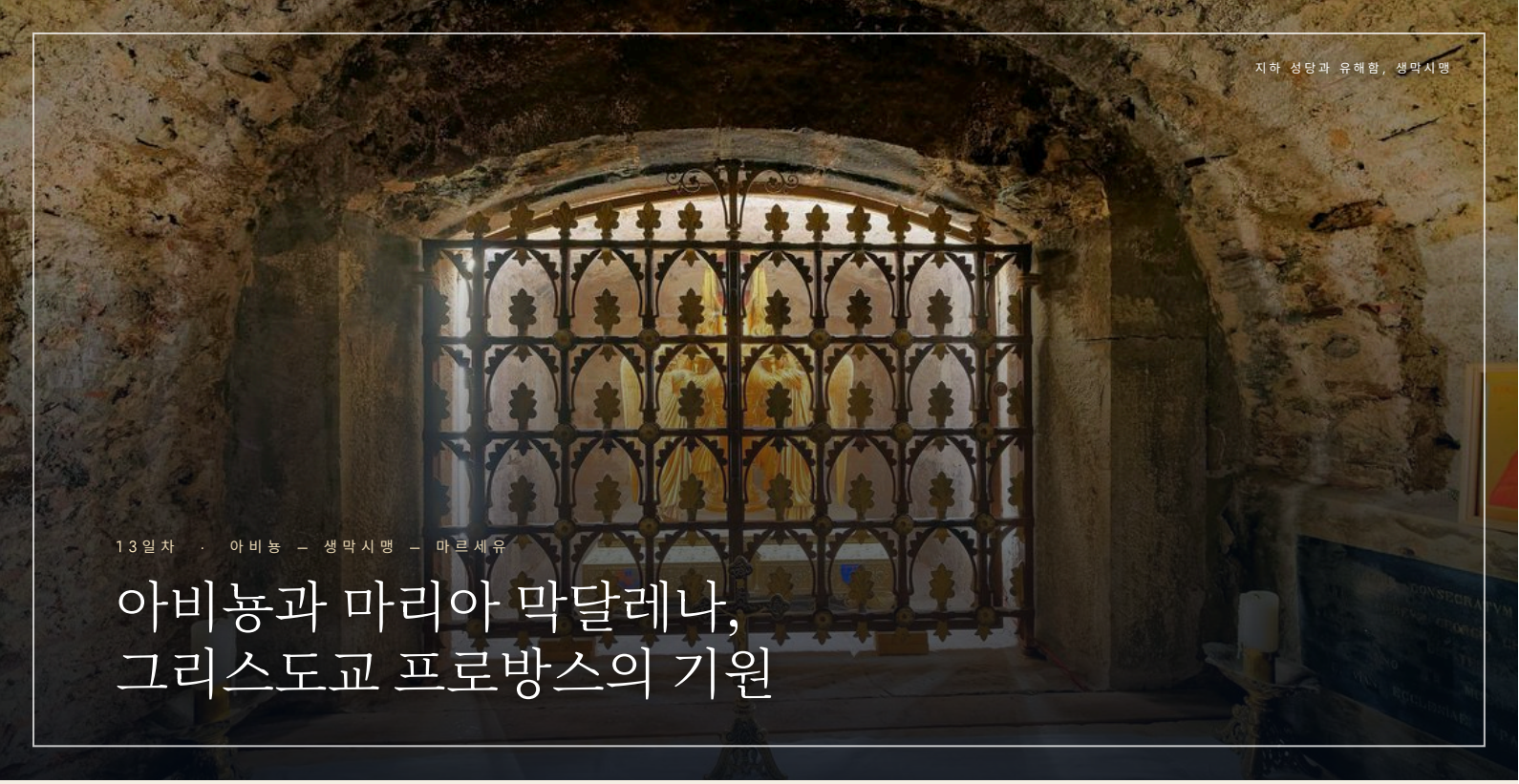
캔자스주 슈거크리크에서 포타와토미족은 그녀를 '쿠아카카눔아드', 곧 '언제나 기도하는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나이 일흔둘이었습니다.



제 V I 장

그리스도교의 뿌리와 부활의 증언

교황청과 노트르담 데 돔 대성당, 아비뇽.



13일차 · 아비뇽 — 생막시맹 — 마르세유

아비뇽과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스도교 프로방스의 기원

오전	오후	저녁
교황청 자유로운 리듬의 관람	생막시맹라생트봄 대성당과 지하 성당	마르세유로 이동, 약 1시간 저녁 식사, 마르세유 숙박

교황청이 자리했던 곳, 그리고 한 제자의 전승.

14세기, 일곱 명의 교황이 **아비뇽**에 머물렀습니다. 당대 가장 큰 고딕 건축군이었던 그들의 **궁전**을 이날 오전 자유롭게 관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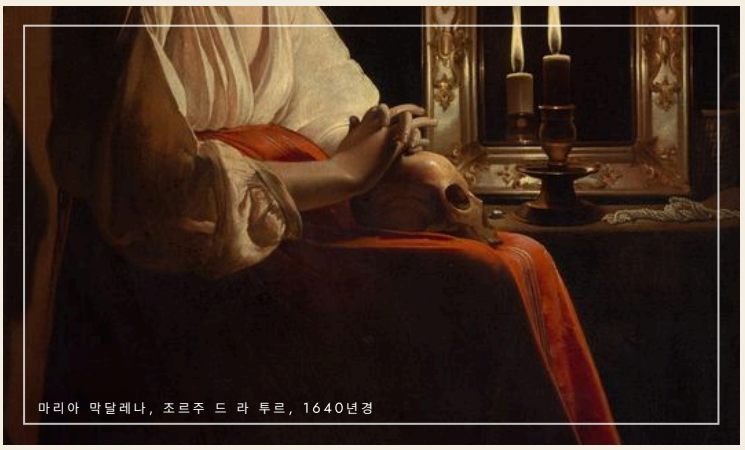
생막시맹의 대성당과 **지하 성당**에서는 전승에 따라 **마리아 막달레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유해를 공경합니다. 복음서는 그녀를 첫 **부활의 증인**으로 전합니다. 중세에 정착된 프로방스 전승은 그녀가 이곳에서 살았다고 전하지만, 역사가 이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마르세유에 도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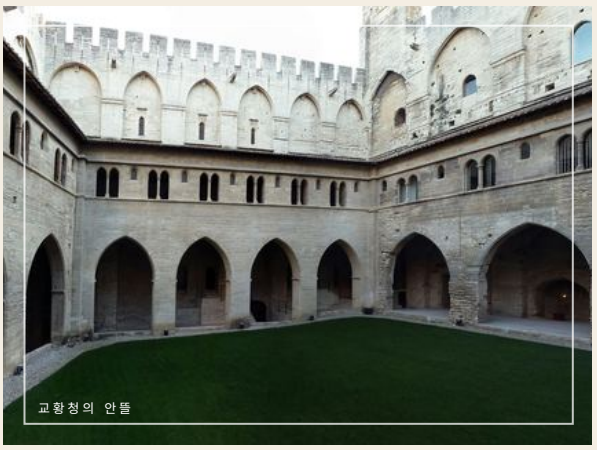
성인의 말씀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요한 복음서 20장 18절



마리아 막달레나, 조르주 드 라 투르, 1640년경



교황청의 안뜰



14일차 · 마르세유 – 마르세유 프로방스 공항

여정의 끝,
평생 간직할 얼굴들

오전	오후	저녁
호텔 조식	전용 버스 이동	탑승 수속 지원
항공편 시간에 따라	마르세유 프로방스 공항으로	여행 종료

*14*일, 그리고 수 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역사.

조식 후 항공편 시간에 맞추어 버스가 일행을 **마르세유 프로방스** 공항으로 모십니다.

탑승 수속 지원과 함께, 프랑스의 위대한 그리스도교 인물들의 삶과 증언, 그리고 유산을 찾아 떠난 여정을 마칩니다.

알고 계셨나요?

2016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을 축일로 높이며,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로 기렸습니다.

일곱 번의 가이드 투어, 엄선한 두 가지 체험

성인들의 이야기에 훌륭한 이야기꾼이 필요한 곳마다 전문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2일차 · 저녁

센강 야경 유람선

성왕 루이와 함께한 하루를 마치고, 불 밝힌 파리의 기념물들을 따라 강 위를 달리는 파노라마 유람.



5일차 · 이른 오후

알랑송 레이스 공방

젤리 마르탱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에서 특별한 레이스의 손놀림과 기법을 발견합니다.

일곱 번의 전문 가이드 투어

2 일차	파리	성왕 루이와 생트샤펠
3 일차	파리	빈첸시오 아 바오로, 루도비카 드 마릴락, 가타리나 라부레
5 일차	알랑송	루이와 젤리 마르탱, 그들의 가정생활
6 일차	투르	성 마르티노와 그의 이야기가 깃든 곳
10 일차	리옹	블란디나, 이레네오, 폴린 자리코
11 일차	안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요안나 드 샹탈
12 일차	그르노블	로즈 필리핀 뒤센과 그녀의 성소

세심하게 준비한 여행

모두가 본질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만남과 기도, 그리고 발견.



예수 성심 대성당, 파레르모니알

교통

-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영접
- 도착 시 호텔까지 전용 차량 이동
-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
- 출발 시 마르세유 프로방스 공항까지 이동

숙박

- 엄선한 숙소에서 13박
- 4성급·5성급 프리미엄 호텔, 지역과 객실 사정에 따라
- 방문 일정에 맞춘 편안함, 서비스, 입지

문화 체험

- 센강 야경 유람선
- 알랑송 레이스 체험 공방

방문과 발견

- 14일간의 깊이 있는 영성·역사 프로그램
- 전문 가이드 투어 7회
- 일정에 포함된 성지, 경당, 대성당, 역사적 가옥, 각 장소의 관람 조건에 따름
- 생트샤펠, 퐁트네 수도원, 교황청
- 생막시맹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대성당

특별한 순간

- 파리 환영 만찬
- 주요 성지에서의 묵상 시간
- 성인들의 삶의 자리와 유물 만나기
- 각 장소의 일정에 따른 전례 참례 가능

리지외, 느베르, 퐁트네, 파레르모니알, 아르스, 아비뇽 방문에는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가옥과 보존된 방의 관람, 개방 시간, 전례는 여행 준비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식사 포함 범위는 견적서에 명시됩니다.

사진: Unsplash, Pixabay, Flickr,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역사 작품, CC-BY 및 CC-BY-SA 라이선스 사진, 저작자는 원 출처에 명시). 초상: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엘 그레코, 성 마르티노); Wellcome Collection, CC BY 4.0 (마르가리타 마리아); Leipzig University Library, Rijksmuseum (이레네오, 블란디나); Memòria Digital de Catalunya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샹탈); Eymardian Places (폴린 자리코); Missouri Encyclopedia, State Historical Society of Missouri (필리핀 뒤센); 표지: Unsplash.



여행 그 이상의 여정

마음을 울린 삶들, 세기를 건너온 믿음

여러분은 하느님께 삶을 봉헌한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이 자란 집과 일상의 물건, 그리고 그들이 남긴 증언을 만났습니다. 빈첸시오 아 바오로의 사랑에서 데레사의 소박함까지, 리옹 순교자들의 용기에서 필리핀 뒤센의 선교 열정까지, 모든 이야기가 복음을 살아 내는 저마다의 길을 보여 줍니다.

프랑스에서의 14일. 수 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역사.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 영감을 주는 삶들과의 수많은 만남.

밤이 내린 안시 호수